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성격 강점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하 승 수[†]

권 석 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Cloninger(1987, 2004)가 제안한 기질차원과 VIA(Values In Action) 분류체계에 근거한 성격 강점 간의 관계를 밝힐 뿐만 아니라 기질과 성격 강점의 관계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생득적인 성향으로서의 기질과 후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성격 강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4가지 기질 차원과 3가지 부모 양육태도 및 24가지 성격 강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기질과 성격 강점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차원들이 각각 독특한 양상으로 개별적인 성격 강점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사회적 민감성은 인간애와 관련된 강점들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인내력은 용기와 관련된 강점들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아울러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인간애 관련 성격 강점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성격 강점의 형성에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주요어 : 성격강점, 기질,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하승수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M315호 집단상담실
Tel : 02-880-6431 / Fax : 02-877-6428 / E-mail : ssha0407@snu.ac.kr

성격 강점(character strengths)은 사고와 정서, 그리고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을 의미한다(Park, Peterson, & Seligman, 2004). 인간의 강점 및 잠재력의 발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개인의 재능 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긍정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제시한 성격 강점의 분류체계를 통해 강점과 관련된 연구 주제가 보다 확장되었다. 긍정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성격 강점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는데, 감사(Bryant, 1989; Langston, 1994), 낙관성(Tiger, 1979), 용서(Mauger, Perry, Freeman, Grove, McBride, & McKinney, 1992), 활력(Ryan & Fredrick, 1997), 친절(Rushton, Chrisjohn, & Fekken, 1981) 등의 개별 성격 강점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여러 시대와 문화권에서 소중하게 여겨졌던 수십 개의 성격 강점들을 추출하고 10가지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검토한 후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으로 구성된 VIA(Values in Action) 분류체계(VIA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이하에서는 VIA 분류체계라고 칭함)를 구성하게 된다. 개별 성격 강점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 주목하던 기존의 연구들은 24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 강점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인 VIA-IS(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Peterson & Seligman, 2004)가 등장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주제 아래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성격 강점 연구들은 성격 강점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그 관계에서 문화차와 연령차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성격 강점이라는 긍정적 특질과

다른 긍정적 상태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많지만, 성격 강점이 발현되고 변성하는 과정을 탐색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강점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으로서 기질(temperament)에 주목하였다. 기질은 개인의 기본성향 혹은 생물학적 기본구조이며(Wicks-Nelson & Israel, 2000), 일반적으로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등에서의 개인차로 개념화된다(Prior, 1992). 기질의 신경생물학적 기반 및 기질과 성격의 관계를 연구해 온 Cloninger(1987)는 쌍생아 연구, 가계 연구, 종단 연구, 인간 및 다른 동물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신경약물학, 신경해부학 및 신경행동학 연구, 그리고 심리측정적 연구의 결과들에 기초하여 유전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기질 모델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 기질차원은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그리고 인내력(persiste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극추구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신호를 추구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 위험회피는 처벌이나 위험의 신호에 대해 행동이 억제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 사회적 민감성은 사회적 애착에 대한 의존성에서의 개인차, 인내력은 지속적 강화가 없이도 이전에 보상된 행동을 일정 시간동안 유지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한다.

상술한 기질 모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기질차원의 극단적 경향성이 부적응적 심리상태 및 심리장애에 대한 취약요인으로 작용함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다. 청소년의 높은 위험회피 성향은 우울에 대한 취약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김보경, 민병배, 2006), 이러한 위험회피 성향이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높고 우울증의 약물치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들(김봉석, 2004; Abrams, Yune, Kim, Jeon, Han, Hwang, Sung, Lee, & Lyoi, 2004)이 있다. 또한 절도, 폭력, 강도, 성폭력 및 기타 경범죄 등으로 구속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성적인 비행행동의 원인 중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요인으로서는 높은 자극추구, 낮은 위험회피 및 낮은 사회적 민감성 기질을 보고하기도 했다(정선주, 서동혁, 함봉진, 조성진, 한창환, 류인균, 홍강의, 2002). Richer와 Eisemann(2002)은 단극성 우울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위험회피와 낮은 자율성 기질이 우울증의 취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Cloninger(1987)의 기질 모형은 성격장애의 전통적 하위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자극추구 기질은 군집 B 성격장애와 상관이 높고, 위험회피 기질은 군집 C 성격장애와 상관이 높으며,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군집 A 성격장애와 높은 역상관을 보였다(Svrakic, Whitehead, Przybeck, & Cloninger, 1993). 아울러 기질차원들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특정한 기질차원은 특정한 성격장애에 대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질차원 분류가 심리장애의 진단 및 취약성 판별을 목적으로 한 모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심리상태와 연결하여 살펴보려는 기존의 편향된 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관점을 확장하여 특정 기질차원의 경향성과 긍정적 심리 속성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들이 성격 강점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또 하나의 주요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자녀가 태어나

성숙할 때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필연적인 인간관계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지적, 정서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 가치관, 지식 등의 일차적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모와의 초기 경험은 아동의 성격발달 및 대인관계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 정서발달, 인격형성,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다(Bronfenbrenner & Mahoney, 1975).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심리장애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울과 품행장애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과 관련된다는 많은 연구들(신현균, 2002; 이훈진, 2004; Heaven, Newbury, & Mak, 2004)이 있으며, 비행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이 부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라고 보고한 연구(Ruchkin, Eisemann, & Cloninger, 1989)도 있다. 부모의 낮은 돌봄과 과보호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었고(Rey & Plapp, 1990), 신체적 학대와 방치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품행장애와 비행 및 공격성에 대한 결정적인 위험요인이었다(Cicchetti & Toth, 1995). 또한 모의 돌봄이 적고 과보호가 많은 것이 우울, 불안, 적대감, 신체화, 강박증 등 대부분의 정신병리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오동재, 전성일, 장환재, 1993)도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부모의 부정적인 양

육태도에 주목한 데 반하여, 긍정적 특질이 발현되고 번성하는 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케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기질차원과 성격 강점의 관계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Cloninger(1987)의 4가지 기질차원과 Peterson과 Seligman(2004)의 24가지 성격 강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탐색된 기질차원과 성격 강점의 관계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가 부재하여 개념적으로 예측컨대, 기질차원의 자극추구는 상위덕목의 용기 및 하위덕목의 창의성, 호기심, 용감성, 활력 등과 정적으로 관련되며, 상위덕목의 절제 및 하위덕목의 관대성, 신중성, 자기조절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위험회피는 상위덕목의 절제 및 하위덕목의 신중성 등과 정적으로 관련되며, 상위덕목의 용기 및 하위덕목의 개방성, 용감성, 활력, 낙관성 등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사회적 민감성은 상위덕목의 인간애 및 하위덕목의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관대성, 감사, 유머감각 등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인내력은 하위덕목의 끈기, 활력, 자기조절 등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아울러 일부 기질차원과 성격 강점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는 부분매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서울 소재 S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21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 남자가 128명(60.1%)이었고 여자가 85명(39.9%)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75세(표준편차 2.38)였다.

측정 도구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의 기질 척도

이 검사는 Cloninger, Przybeck, Svrakic, 및 Wetzel(1994)이 제안한 기질-성격 모형에 기초하여 개발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기질을 측정하는 4개 척도와 성격을 측정하는 3개 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2007a)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대학생 이상 성인의 평가에 적용되는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의 전체 척도 중에서 기질척도 4가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자극추구 기질척도는 총 20문항, 위험회피 기질척도는 총 21문항, 사회적 민감성 기질척도는 총 20문항, 그리고 인내력 기질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참여자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서 직접 평정한다. 이 검사의 한국판 표준화연구에 참여한 일반 성인집단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각각 .84(자극추구), .87(위험회피), .81(사회적 민감성), .78(인내력)이었으며, 같은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집단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각각 .90(자극추구), .76(위험회피), .76(사회적 민감성), .89(인내력)였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b).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척도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척도 단축형(Arindell & Angebretsen, 2000)을 문민정(2008)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이다. 총 23문항으로 온정, 과보호, 거부의 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온정 척도에는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 과보호 척도에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셨다.’, 거부 척도에는 ‘아버지(어머니)는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게 화를 내시거나 불쾌해하셨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부의 온정 .86, 부의 과보호 .77, 부의 거부 .75였고, 모의 온정 .87, 모의 과보호 .80, 모의 거부 .78이었다.

성격 강점 검사(Character Strengths Test: CST)

개인의 긍정적 성품과 덕목을 측정하기 위해 권석만과 유성진, 임영진 및 김지영(2010)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제시한 VIA 분류 체계에 따라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자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선의도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CST는 총 2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5개 하위척도는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측정되고 각 문항은 피검자에 의해 Likert 4점 척도(0=전혀 아니다, 3=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검사문항은 각 성격 강점의 개념적 정의, 심리적 경험과 행동적 발현 양상, 그리고 개별 강점을 측정하는 기존의 검사문항 등을 참고하여 강점별로 15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한 후, 대학생 집단으로부터 수집한 경험적 자료

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문항이 선별되었다. 최종 문항으로 구성된 하위 검사들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각각 신뢰도와 타당도가 조사되었다. 그 결과 내적 합치도 계수는 .74~.92의 범위였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62~.87이었다. 또한 각 하위척도와 밀접히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공존타당도를 살펴보았는데, 창의성과 끈기, 신중성, 심미안, 감사, 유머감각 및 영성이 .70 이상의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진실성(.35)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도 모두 .4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결 과

성별에 따른 기질, 성격 강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구성개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 대학생들은 기질의 하위차원 가운데 인내력에서만 남녀차이(남 > 여, $t = 1.99, p < .05$)를 보일뿐, 다른 하위차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격 강점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하는 성격 강점(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4점 평정척도로 평가하게 했을 때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는 강점)은 사랑(22.47)이었고 그 다음으로 친절성(21.40), 감사(20.86), 낙관성(20.18), 진실성(19.69)이 뒤를 이었다. 시민의식, 개방성, 겸손, 공정성, 자기조절, 신중성의 강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표 1. 기질, 성격 강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유형 별 평균 및 표준편차

	전체(N=213) 평균(표준편차)	남(N=128) 평균(표준편차)	여(N=85) 평균(표준편차)	t
기질				
자극추구	37.49(9.74)	37.39(9.23)	37.64(10.52)	-.18
위험회피	39.22(7.05)	39.76(7.13)	38.39(6.90)	1.38
사회적 민감성	41.58(5.49)	41.24(5.59)	42.08(5.34)	-1.10
인내력	45.19(9.57)	46.24(9.63)	43.58(9.29)	1.99*
성격 강점				
창 의 성	17.37(6.89)	17.93(6.79)	16.52(7.00)	1.47
호 기 심	17.89(5.65)	18.00(5.33)	17.72(6.14)	.36
개 방 성	17.66(5.61)	18.70(5.53)	16.09(5.39)	3.40**
학 구 열	13.90(6.01)	13.91(6.07)	13.87(5.96)	.05
지 혜	16.05(5.49)	16.43(5.54)	15.47(5.40)	1.25
사 랑	22.47(4.26)	21.91(4.19)	23.32(4.24)	-2.40*
친 절 성	21.40(4.92)	21.02(4.22)	21.98(5.80)	-1.40
사회지능	17.73(5.09)	17.47(5.12)	18.12(5.06)	-.91
용 감 성	15.25(4.92)	15.83(4.85)	14.36(4.94)	2.16*
끈 기	16.53(6.02)	16.67(6.09)	16.32(5.94)	.41
진 실 성	19.69(4.74)	19.80(4.97)	19.53(4.40)	.41
활 력	17.53(5.87)	17.16(5.96)	18.09(5.72)	-1.14
관 대 성	15.92(5.67)	16.24(5.67)	15.45(5.65)	1.00
겸 손	18.04(6.00)	19.05(5.97)	16.52(5.74)	3.07**
신 중 성	16.83(4.78)	17.35(4.81)	16.03(4.65)	1.99*
자기조절	15.86(5.86)	16.80(6.14)	14.45(5.15)	2.90**
시민의식	17.84(4.77)	18.82(4.62)	16.36(4.65)	3.79**
공 정 성	17.99(4.83)	18.79(4.59)	16.79(4.97)	3.01**
리 더 십	15.91(6.10)	16.27(5.98)	15.38(6.28)	1.04
심 미 안	17.84(6.78)	16.73(6.53)	19.52(6.86)	-2.99*
감 사	20.86(5.15)	20.14(5.49)	21.94(4.41)	-2.53*
낙 관 성	20.18(5.15)	20.19(5.16)	20.16(5.15)	.04
유미감각	19.20(5.71)	19.54(5.29)	18.69(6.30)	1.06
영 성	8.39(7.43)	7.28(6.71)	10.05(8.17)	-2.70**
양육태도				
부 온정	21.15(5.50)	20.71(5.45)	21.81(5.55)	.06
부 거부	8.85(2.98)	8.86(2.96)	8.83(3.03)	-1.43
부 과보호	13.22(4.19)	13.02(3.72)	13.52(4.83)	-.86
모 온정	24.90(4.27)	24.54(4.26)	25.45(4.26)	-1.17
모 거부	8.92(2.65)	8.74(2.64)	9.18(2.66)	-1.53
모 과보호	17.29(4.92)	17.07(4.79)	17.61(5.11)	-.77

* $p < .05$, ** $p < .01$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심미안, 영성, 낙관성, 사랑의 강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보고했다.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해서는 모든 하위유형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집단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질차원과 성격 강점 사이의 관계

기질 검사의 4가지 기질차원과 성격 강점 검사의 24개 성격 강점 사이의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질차원과 성격 강점 사이의 관계는 본 연구자들의 가설에 준하는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자극 추구 기질은 상위덕목 가운데 예상했던 용기($r=.15, p<.05$)뿐만 아니라 지혜($r=.23, p<.01$), 인간애($r=.23, p<.01$), 초월($r=.21, p<.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가설과 마찬가지로 절제($r=-.34, p<.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하위덕목 가운데에는 창의성($r=.37, p<.01$), 호기심($r=.36, p<.01$), 심미안($r=.29, p<.01$)의 성격 강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자기조절($r=-.38, p<.01$), 겸손($r=-.29, p<.01$), 신중성($r=-.27, p<.01$)의 성격 강점과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위험 회피 기질은 상위덕목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하위덕목 가운데 신중성($r=.28, p<.01$), 공정성($r=.24, p<.01$), 개방성($r=.22, p<.01$)의 성격 강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대부분의 성격 강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 친절성($r=.43, p<.01$), 사랑($r=.41, p<.01$), 호기심($r=.41, p<.01$)의 성격 강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내력 기질 또한 대부분의 성격 강

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 끈기($r=.60, p<.01$), 용감성($r=.59, p<.01$), 지혜($r=.56, p<.01$)의 성격 강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질차원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사이의 관계

기질 검사의 하위차원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검사의 하위유형 사이의 상관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자극 추구, 위험 회피 기질차원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거부 및 과보호)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민감성 기질차원은 부모의 온정 및 과보호 양육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내력 기질차원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성격 강점 사이의 관계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검사의 하위유형과 성격 강점 사이의 상관계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성격 강점으로는 호기심, 지혜,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끈기, 활력, 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심미안,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 등이 있었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과보호)와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성격 강점으로는 관대성이 있었다.

기질차원과 성격 강점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앞서 제시한 상관분석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표 2. 기질차원과 성격 강점 사이의 상관계수

6개 상위덕목	24개 하위덕목	기질차원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지혜 및 지식 관련 강점	창 의 성	.37**	.05	.28**	.41**
	호 기 심	.36**	-.05	.41**	.46**
	개 방 성	-.04	.22**	.26**	.53**
	학 구 열	.08	.11	.23**	.39**
	지 혜	.09	.14*	.30**	.56**
인간에 관련 강점	사 랑	.15*	-.09	.41**	.26**
	친 절 성	.16*	.01	.43**	.20**
	사회지능	.27**	-.14*	.37**	.30**
용기 관련 강점	용 감 성	.19**	.04	.28**	.59**
	끈 기	-.09	.02	.20**	.60**
	진 실 성	.14*	.15*	.40**	.35**
	활 력	.26**	.04	.39**	.51**
절제 관련 강점	관 대 성	-.11	-.04	.14*	.13
	겸 손	-.29**	.11	.04	.06
	신 중 성	-.27**	.28**	.17*	.36**
	자기조절	-.38**	.07	.08	.33**
정의 관련 강점	시민의식	-.12	.06	.25**	.30**
	공 정 성	-.11	.24**	.26**	.29**
	리 더 십	.21**	-.07	.25**	.39**
초월 관련 강점	심 미 안	.29**	-.05	.33**	.29**
	감 사	.04	-.13	.28**	.30**
	낙 관 성	.19**	-.10	.31**	.52**
	유머감각	.26**	-.01	.32**	.27**
	영 성	-.03	-.01	.02	.15*

* $p < .05$, ** $p < .01$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질차원과 성격 강점, 기질차원과 양육태도, 양육태도와 성격 강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이 존재해야 한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기질은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

표 3. 기질차원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검사의 하위유형 사이의 상관계수

	기질차원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부의 양육태도				
부 긍정	-.01	-.06	.12	.08
부 거부	.15*	.16*	.09	.09
부 과보호	.16*	.19**	.20**	.06
모의 양육태도				
모 긍정	.01	-.08	.12	.23**
모 거부	.14*	.22**	.11	.08
모 과보호	.16*	.20**	.18**	.06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긍정	.01	-.08	.14*	.16*
부모 거부	.18**	.23**	.12	.11
부모 과보호	.19**	.24**	.23**	.08

* $p < .05$, ** $p < .01$

질차원이다. 또한 표 2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차원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는 성격 강점은 총 14가지(호기심, 지혜,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끈기, 활력, 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심미안,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이다. 이들의 관계를 살펴 볼 때 각 변인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여 기질차원과 성격 강점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절차는 3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는데, 매개효과를 입증하려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

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두 번째 단계에서 관찰된 영향력보다 감소해야 한다. 이상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뒤, 만약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회귀분석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결

표 4.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검사의 하위유형과 성격 강점 사이의 상관계수

6개 상위 덕목	24개 하위 덕목	부 관련			모 관련			부모관련		
		부 온정	부 거부	부 과보호	모 온정	모 거부	모 과보호	부모 온정	부모 거부	부모 과보호
지혜 및 지식 관련 강점	창 의 성	.06	.01	.06	-.01	.12	.13	.04	.07	.12
	호 기 심	.15*	-.03	.14*	.11	.15*	.13	.15*	.07	.17*
	개 방 성	.01	.04	.01	.07	.08	.01	.04	.07	.01
	학 구 열	-.01	.11	.03	.11	.17*	.07	.05	.16	.06
인간에 관련 강점	지 혜	.14*	.01	.13	.16*	.07	.06	.18**	.04	.11
	사 랑	.29**	-.12	.05	.38**	-.10	-.04	.39**	-.13	.01
	친 절 성	.25**	-.02	.07	.27**	.01	.07	.31**	.01	.09
	사회지능	.19**	-.08	.07	.29**	-.06	-.05	.28**	-.09	.02
용기 관련 강점	용 감 성	.06	.06	.04	.11	.03	-.10	.09	.06	-.04
	끈 기	.04	.05	-.05	.23**	-.02	-.01	.14*	.03	-.03
	진 실 성	.06	.03	.03	.09	.13	.04	.09	.10	.05
	활 력	.17*	-.01	.05	.21**	.06	.03	.22**	.04	.05
절제 관련 강점	관 대 성	.07	-.21**	-.11	.12	-.15*	-.14*	.11	-.21**	-.15*
	겸 손	-.03	-.15	-.10	.13	-.12	-.10	.04	-.16*	-.11
	신 중 성	.02	-.02	.02	.15*	.01	-.06	.09	-.01	-.03
	자기조절	.05	-.14*	-.08	.15*	-.13	-.07	.11	-.17*	-.08
정의 관련 강점	시민의식	.15*	-.26**	-.01	.15*	-.11	-.02	.18*	-.23**	-.01
	공 정 성	.16*	-.21**	-.06	.14	-.15*	-.10	.18*	-.22**	-.10
	리 더 십	.20**	-.15*	.06	.25**	-.03	-.04	.26**	-.12	.02
초월 관련 강점	심 미 안	.18**	.02	-.05	.24**	.17**	.08	.25**	.10	.03
	감 사	.34**	-.26**	.04	.36**	-.12	-.04	.41**	-.23**	.01
	낙 관 성	.20**	-.18**	.03	.28**	-.14*	.01	.28**	-.19**	.03
	유머감각	.19**	-.11	.11	.22**	-.09	.01	.24**	-.12	.08
	영 성	.02	-.01	.07	.13	.01	-.01	.08	-.01	.03

* $p < .05$, ** $p < .01$

과를 표 5에 요약하였다. 먼저 사회적 민감성 가정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종속변인으로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으로 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사회적 민감성 기

표 5.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지혜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지혜	.30	.30***	.09	20.84***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지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지혜	.29 .10	.29*** .14*	.12	13.34***

질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 = .14, p < .05$,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지혜의 성격 강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지혜의 성격 강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 = .30, p < .001$,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지혜의 성격 강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지혜의 성격 강점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9, p < .001$) 및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지혜의 성격 강점에 미치

는 영향력($\beta = .14, p < .05$)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상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뒤,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지혜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 = .30 > \beta = .29$),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지혜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동일한 통계절차를 통해서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사랑(표 6), 친절성(표 7), 사회지능(표 8), 활력(표 9), 시민의식(표 10), 리더십(표 11), 심미안(표 12), 감사(표 13), 낙관성(표 14), 유머감각(표 15)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표 6.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사랑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사랑	.32	.41***	.17	43.33***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사랑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사랑	.28 .18	.36*** .34***	.28	40.08***

표 7.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친절성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친절성	.38	.43***	.18	46.63**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친절성	.35	.39***	.24	33.16***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친절성	.16	.26***		

표 8.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사회지능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사회지능	.35	.37***	.14	33.65***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사회지능	.31	.34***	.18	23.76***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사회지능	.15	.23***		

수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때,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사랑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41 > \beta=.36$),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지혜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친절성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43 > \beta=.39$),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친절성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에서 살펴보듯이,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사회지능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37 > \beta=.34$),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사회지능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활력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39 > \beta=.37$),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활력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활력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활력	.42	.39***	.15	37.78***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활력	.39	.37***	.18	22.71***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활력	.13	.17**		

표 10.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시민의식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시민의식	.21	.25***	.06	13.42***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시민의식	.20	.23**	.08	9.15***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시민의식	.09	.15*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때,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시민의식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25 > \beta=.23$),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시민의식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볼 때, 두 번째 단계

표 11.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리더십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리더십	.28	.25***	.06	14.22***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리더십	.24	.22**	.12	13.46***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리더십	.17	.23**		

표 12.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심미안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심미안	.41	.33***	.11	26.30***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심미안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심미안	.38 .17	.31*** .21**	.15	18.73***

표 13.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감사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감사	.26	.28***	.08	17.17***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감사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감사	.20 .24	.22** .38***	.22	28.29***

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리더십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25 > \beta=.22$),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리더십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심미안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표 14.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낙관성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낙관성	.29	.31***	.10	22.19***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낙관성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낙관성	.26 .15	.27*** .24***	.15	18.02***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 = .33 > \beta = .31$),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심미안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때,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감사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 = .28 > \beta = .22$),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감사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낙관성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β

$= .31 > \beta = .27$),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낙관성의 성격 강점 관계에 대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갖는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5에서 살펴보듯이,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유머감각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 = .32 > \beta = .29$),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유머감각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인내력 기질차원과 14가지 성격 강점(호기심, 지혜,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끈기, 활력, 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심미안, 감사,

표 15.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유머감각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 ²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유머감각	.33	.32***	.10	23.70***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유머감각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유머감각	.30 .14	.29*** .20**	.14	16.75***

표 16.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인간애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 ²	F
단계 1 (독립→매개)	사회적 민감성→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0	.14*	.02	4.04*
단계 2 (독립→종속)	사회적 민감성→인간애	1.05	.46***	.22	57.63***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사회적 민감성→인간애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인간애	.93 .48	.42*** .31***	.31	45.91***

낙관성, 유머감각)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그 어떤 성격 강점과의 관계에서도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된 11개의 성격 강점(지혜,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활력, 시민의식, 리더십, 심미안,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을 살펴볼 때, 해당 강점의 상위덕목이 인간애 및 초월에 편중되어 있는 바 성격 강점의 상위덕목별로 같은 과정의 통계절차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인간애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위덕목에서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분매개효과를 보인 유일한 상위덕목인 인간애와 관련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표 16에 요약하였다.

하위덕목의 분석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때,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인간애의 성격 강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46 > \beta=.42$),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인간애의 성격 강점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Cloninger(1987, 2004)가 제안한 기질차원과 VIA 분류체계에 근거한 성격 강점의 관계를 밝히고, 기질과 성격 강점의 관계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특정 기질차원의 극단적 경향성이 부적응적 심리상태 및 심리장애에 대한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김보경, 민병배, 2006; 김봉석, 2004; 정선주 등, 2002; Reicher & Eisemann,

2002; Abrams et al., 2004)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기질차원의 경향성과 긍정적 심리 속성의 관계를 탐색해 본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며, 또한 그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개인이 타고 태어난 성향으로서의 기질과, 개인의 성장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긍정적 심리 속성인 성격 강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질검사의 하위차원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유형 및 성격 강점 검사의 상위·하위덕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Baron과 Kenny(199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기질차원과 성격 강점사이의 관계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질검사의 4가지 하위차원과 성격 강점 검사의 상위·하위덕목 각 강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극추구 기질은 절제와는 부적 상관을, 용기·지혜·인간애·초월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창의성, 호기심의 하위덕목 성격 강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반해 위험회피 기질은 상위덕목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신중성, 공정성의 성격 강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인내력 기질은 대부분의 성격 강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 인간애 관련 성격 강점들이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용기 관련 성격 강점들은 인내력 기질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Cloninger(1987, 2004)의 기질-성격 모형과 심리적 적응, 성격 강점, 성격장애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유성진, 권석만,

2009)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이다. 즉, 자극 추구 기질이 높은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풍부할 수 있고, 위험 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들이 신중성과 공정성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으며,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간애가 풍부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로 사회적 민감성 기질 차원의 상관패턴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성격 강점의 6개 상위척목 가운데 인간애와 관련된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의 성격 강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높은 사람이 애정이 많고 따뜻하며 민감하고 헌신적이라는 Cloninger(1987, 2004)의 기질모형 가정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 차원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상관관계는, 기질 차원과 부모의 양육태도 사이에 상호관계적인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모인선, 김희연, 2005)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민감성 기질 차원은 인간애 관련 성격 강점은 아니지만 주로 타인지향적이고 감성적인 강점에 해당하는 리더십, 시민의식, 유머감각, 감사의 성격 강점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VIA 분류체계의 24가지 성격 강점 하위척목을 새롭게 분류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Gardner(1999)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대인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과 자성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으로의 구분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듯이, VIA 분류체계의 상위척목과 별도로 각 성격 강점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Schwartz와

Sharpe(2006)의 원형모델(circumplex model) 구분이라든지, Peterson과 Seligman(2004)이 24개 강점 점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것 등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아울러 기질 차원과 성격 강점의 관계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본 결과,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인간애 관련 성격 강점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인간애의 성격 강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를 통하여 인간애의 성격 강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들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 활동적인 유아의 기질과 온정적인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자기통제성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이주란, 이소은, 2004)가 있으며, 또한 아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아동의 기질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기질과 양육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ochanska, Aksan, & Joy, 2007)도 있다. 이는 사회적 민감성 기질 이외의 다른 기질 차원과 성격 강점 사이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어떠한 매개효과도 보이지 못했던 본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성격 강점의 6가지 상위척목 가운데 오직 인간애에서만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인 사실도 같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인간애 관련 성격 강점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본다면, 선천적으로 강한 사회적 민감성 기

질을 타고난 사람은 부모로부터 보다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이끌어내고, 기질차원과 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 친절성, 사회기능 등의 성격 강점을 발현하게 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분명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척도가 실제 부모의 양육방식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한계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논의들이 가능하였으며, 본 연구에는 상당한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할 점들이 있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 집단에 한정되었기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특정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였기에, 자료의 일부 내용들에서 특정 대학 학생의 독특한 경향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임상집단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서 자료를 확보하여 반복검증 등의 방법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한 연구였던 탓에 다양한 종류의 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Kahneman & Tversky, 2000), 상당 부분의 통계분석을 상관분석에 의지하였기에 자칫 피상적이고 장황한 결과를 나열한 인상을 준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겠다. 향후 보다 다양한 자료수집 및 연구분석 방법을 통해 이러한 제한점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하위차원이 지나치게 많은 탓에 각 기질차원의 하위척도 점수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상관관계의 복잡한 결과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는 하위척도의 점수를 분별하여 재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질모형 연구 관점을 확장하여 특정 기질차원의 경향성과 긍정적 심리 속성인 성격 강점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며, 그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성격 강점이라는 긍정적 특질과 다른 긍정적 상태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성격 강점이 발현되고 번성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논할 수 있다. 아울러 기질모형을 활용하는데 보다 생산적인 관점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VIA 분류체계에 따른 성격 강점의 새로운 분류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가 긍정 심리학의 바탕 아래에서 개인의 성격 강점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실용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석만, 유성진, 임영진, 김지영 (2010). 성격 강점 검사 -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221-236.
- 김봉석 (2004). 주요우울증환자에서 항우울증 약물치료 전후 위험회피성의 변화. 인제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민정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수용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 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a). 기질 및 성격 검사 성인용(TCI-RS). 서울: (주)마음사랑.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b). 기질 및 성격 검사 매뉴얼. 서울: (주)마음사랑.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171-187.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896-903.
- 유성진, 권석만 (2009).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에 있어서 기질-성격 모형의 임상적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563-586.
- 이주란, 이소은 (2004).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따른 유아의 자기통제력. *생활과학연구논총*, 8(1), 93-115.
- 이훈진 (2004).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애착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381-395.
- 정선주, 서동혁, 함봉진, 조성진, 한창환, 류인균, 홍강의 (2002). 구속된 비행청소년들의 기질 및 성격 차원, 가정환경 요인과 반사회적 인격 특성간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41, 670-679.
- Abrams, K. Y., Yune, S. K., Kim, S. J., Jeon, H. J., Hwang, J., Sung, Y. H., Lee, K. J., & Lyoo, I. K. (2004). Trait and state aspects of harm avoidance and its implication for treatment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dysthymic disorder, and depressiv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8, 240-248.
- Arrindell, W. A., & Angebretsen, A. A. (2000). Convergent validity of the short EMBU and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 Dutch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 262-26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onfenbrenner, U., & Mahoney, M. A. (1975).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2nd Ed.), Hinsdale, Ill: The Dryden.
- Bryant, F. B. (1989). A four-factor model of perceived control: Avoiding, coping, obtaining, and savoring. *Journal of Personality*, 57, 773-797.
- Cicchetti, D., & Toth, S. L.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5.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7.
- Cloninger, C. R. (2004). *Feeling good: The science of well-being*.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 Gardner, H. (1999). *Intelligence reframed: Multiple intelligenc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 Basic Books.
- Heaven, P. C. L., Newbury, L., & Mak, A. (2004). The impact of adolescent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on adolescent levels of delinquenc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73-185.
- Kahneman, D., & Tversky, A. (2000). Experienced utility and objective happiness: A moment-based approach. In D. Kahneman & A. Tversky (Eds.), *Choices, Values and Frames*(pp.673-69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 the Russell Sage Foundation.
- Kochanska, G., Aksan, N., & Joy, M. E. (2007). Children's fearfulness as a moderator of parenting in early socialization: Two longitudinal stud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222-237.
- Langston, C. A. (1994). Capitalizing on and coping with daily-life events: Expressive responses to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112-1125.
- Mauger, P. A., Perry, J. E., Freeman, T., Grove, D. C., McBride, A. G., & McKinney, K. E. (1992). The measurement of forgiveness: Preliminary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1, 170-180.
- Park, N.,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03-619.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rior, M. (1992). Childhood tempera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249-279.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icher, J., & Eisemann, M. (2002). Self-directedness as a cognitive feature in depressive pati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327-1337.
- Ruchkin, V. V., Eisemann, M., Hägglöf, B., & Cloninger, C. R. (1998). Interrelation between temperament, character, and parental rearing in male delinquent adolescents in Northern Russia. *Comprehensive Psychiatry*, 39, 225-230.
- Rushton, J. P., Chrisjohn, R. D., & Fekken, G. C. (1981). The altruistic personality and the self-report altruism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 293-302.
- Ryan, R. M., & Frederick, C. (1997). On energy, personality, and health: Subjective vitality as a dynamic reflection of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65, 529-565.
- Schwartz, B., & Sharpe, K. E. (2006). Practical wisdom: Aristotle meets positive psycholog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77-395.
- Svrakic, D. M., Draganic, S., Hill, K., Bayon, C., Przybeck, T. R., & Cloninger, C. R. (2002). Temperament, character, and personality disorders: Etiologic, diagnostic, treatment issue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6(3), 189-195.
- Tiger, L. (1979). *Optimism: the biology of hope*. New

York: Simon & Schuster.
Wicks-Nelson, R., & Israel, A. C. (2000).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NJ: Prentice Hall.

원고접수일 : 2010. 12. 1.
게재결정일 : 2011. 1. 6.

Influence of Temperament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Character Strength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Seung-Soo Ha

Seok-Man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loninger(1987, 2004)'s temperament dimensions and the character strengths of the VIA(Values In Action) classification,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the above relationship. In order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our temperament dimensions, three parenting styles, and 24 character strength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mperament dimensions were separately related to specific character strengths, especially reward dependence to humanity-related strengths, and persistence to courage-related strengths.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a warm-hearted parenting styl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ward dependence and humanity-related strength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nfluence of temperaments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character strengths was discussed.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character strength, temperament, perceived parenting style